

LOCAL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나주 영산강서 ‘정원페스티벌’ 열린다



영광, 제1기 청년부군수 위촉
청년 목소리 담은 정책 개발

영광군은 최근 ‘제1기 청년명예부군수’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청년 중심의 군정 참여 시대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명예부군수제는 민선 8기 장세일 군수 핵심공약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19~45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오디션 형식의 발표와 심층면접 등 심사를 거쳐 청년명예부군수 1명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1명을 최종 선발했다.

청년명예부군수로 위촉된 청년공동체 명하어로즈 조아라 대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뛰어난 소통 역량, 적극적인 참여 의지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아라 청년명예부군수는 앞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1년 동안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영광=정규발 기자 ykjpg98@gwangnam.co.kr

함평,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경도인지장애어르신 대상

함평군은 올해 말까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총 10회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원예활동을 중심으로 심신치유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참여 어르신과 가족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0일 함평군농업기술센터, 함평군 공립요양병원, 함평군 치유농업연구회가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의 실질적인 첫 결실로 행정, 의료, 민간이 협력해 주목받고 있다.

함평=최일권 기자 6263739@gwangnam.co.kr

시,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10월 8~29일 개최
지역 축제·정원 연계...새로운 관광콘텐츠 연출

나주 ‘영산강정원’이 전남 정원페스티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며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주목 받게 됐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정원페스티벌 공모에 영산강정원이 최종 선

정돼 오는 10월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전남도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해 ‘남도 K-가든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정원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나주시를 비롯해 화순

군, 곡성군 등 도내 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나주시는 서류, 현장, 발표 등 전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2025년 정원페스티벌은 ‘영산강, 정원이 되다’를 주제로 오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같은 시기 열리는 나주영산강축제(10월 8~12일), 국제농업박람회(10월 23~29일)와 연계해 축제와 정원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

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전문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조성한 특화정원을 비롯해 영산강 수변 생태환경을 반영한 식재, 생태투어,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정원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영산강의 생태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강과 정원의 융합’이라는 나주만의 독창적인 정원문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원페스티벌을 계기로 영산

강 정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관광 및 원도심 중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시장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정원페스티벌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정원을 통해 변화된 영산강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보성 미세먼지차단숲 꽃양귀비 만개
보성군 미세먼지차단숲이 최근 꽃양귀비의 붉은 물결로 물들며 군민들의 발길을 이여지고 있다. 초여름을 맞아 만개한 꽃양귀비는 숲길을 따라 화사한 풍경을 연출하며 산책로를 찾는 이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

“올 여름 여수서 해양레저스포츠 즐기세요”

윈드서핑·스킨스쿠버 등 운영
8개 종목 진행...9월 7일까지

여수시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체험 종목은 윈드서핑과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수상자전거, 당기요트, 크루저요트 등 8개 종목으로 전문 강사의 교육(안전·이론·장비 등)과 함께 체험이 진행된다.

여수요트학교와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체험 장소는 소호요트마리나(여수요트학교)와 웅천해수욕장(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여수세계박람회장(해양레저스쿨) 등 3개소이다.

참가 신청은 여수시 OK통합예약과 전화예약, 당일 현장접수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체험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가능



여수시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과 함께 오는 9월 7일까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하다.

프로그램별 체험 장소와 예약 방법, 연령 제한이 상이해 반드시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강습료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이며, 편의시설(샤워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여수시민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인된다.

체험 참가자는 물빠짐이 좋은 옷과 아쿠아슈즈, 모자, 선크림, 여벌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예약은 여수요트학교(여

수공공스포츠클럽 061-685-8220), 해양레저스쿨(한국해양소년단 웅천 061-686-0591, 박람회장 070-8837-1004), 스킨스쿠버교실(한국해양구조협회 061-641-0122)로 연락하면 된다.

정기명 시장은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 아름다운 여수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올 여름은 여수에서 시원하고 짜릿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제대로 즐겨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년 연속 선정
보길 종리·여항리 거점공간 조성·시설 리모델링

완도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선정 결과 ‘어울림 보길동 권역(보길면 종리·여항리)’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80억원을 확보했다.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은 주민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군은 현장 답사와 주민 수요를 거쳐 생활기반시설 확충·정비,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정주 여건·경관 개선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등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세부 사업으로 권역 거점 공간 조성, 공동 시설 리모델링,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인구 유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의 열정적인 사업 추진 의지와 박지원 국회의원의 해수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적극적인 건의 등의 덕분이었따”며 “활력 넘치는 보길동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목포, ‘제14회 김의 날’ 기념행사 성료

어업인·가공업체 등 800명 참석

목포시는 최근 김 생산 어업인, 가공업체, 수출업체, 관계 기관·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4회 김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김의 날’은 2010년 김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정월대보름에 김과 함께 복을 싸먹는 ‘김 복쌈’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음력 1월 15일로 지정됐다.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는 김 산업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어민들이 1월 김 채취로 바쁜 점을 고려해 행사를 6월로 조정해 개최하게 됐다.

행사에는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 최봉학 (사)한국김산업연합장 등 김산업 종사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김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전남 으뜸김 품평회 시상, 김 수출 10억달러 달성 축하 및 15억달러 조기 달성 기원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국내 김 수출액은 약 9억9700만 달러를 기록, 2년 연속 1조원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목포시는 1억3300만 달러를 수출하며 전국 1위 김 수출 도시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더불어 시는 2022년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